

사이버공간의 이용과 일상공간의 변화

The Impacts of Cyberspace on Everyday Life Space

남기범(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namh@uos.ac.kr)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일상적인 활용으로 인해 시공간의 압축과 확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기술을 시공간 극복의 도구로만 이해하는 낭만적 미래학자와 기술결정론적 제도론적 예측에서는, 이제 도시와 공간의 역할이 다했으며 (death of cities), 거리마찰의 영향력이 감소(death of distance)하고, 이로 인한 지역과 공간 특성의 소멸(areal uniformity)의 시대라는 논의도 있다. 하지만 지난 30여년간의 정보통신의 발달과 자본의 세계화의 빠른 진행이 지역과 공간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히 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자공간과 이동공간은 확장은 물리적 공간상에 새로운 허브와 노드라는 개념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동시에, 사이버 커뮤니티의 발전은 갈수록 추상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도시공간에 새로운 장소성과 배태성의 소생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나아가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의 보편재화(ubiquitousness of information)는 지식과 혁신의 사회적 자본화와 더불어 한정된 공간에서의 대면접촉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가하게 한다. 즉,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은 서로 양립하고 대체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상호 진화하는 상호의존성을 보인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물리적 거리를 압축하고 이동수요를 대체하는 측면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이동수요를 창출하는 측면도 있으며, 일상공간의 확장과 함께 공사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새로운 공간의 분화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IT의 분야를 '전자공간(인터넷)'과 '이동공간(이동전화, PDA)'으로 구분하고, 이 흐름이 공간이 장소의 공간인 일상공간(가정과 일터)의 분화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1) 시너지 효과(synergy: 새로운 경제활동의 창출, 네트워크의 집적, nomadic 공간의 형성), 2) 대체효과(substitution: 전자공간의 일상공간 대체, 가정-지역사회-일터, 관계와 경계의 변화), 3) 유발효과(generation: 정보와 교통의 수요 증대, 관계적 공간의 형성), 4) 고양효과(enhancement: 합리성과 효율성 증대, 공간의 확장과 축소), 5) 관성효과(inertia: 기존 불균등 공간구조 고착, 연령, 성, 소득별 공간분화)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론화를 시도했다. 또한 다음(Daum), 세이클럽(Sayclub), 싸이월드(Cyworld) 등 인터넷 커뮤니티의 각 세대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고, 각 세대별로 집중그룹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논지를 보강했다.